

DBMS 시장동향 분석

2008.0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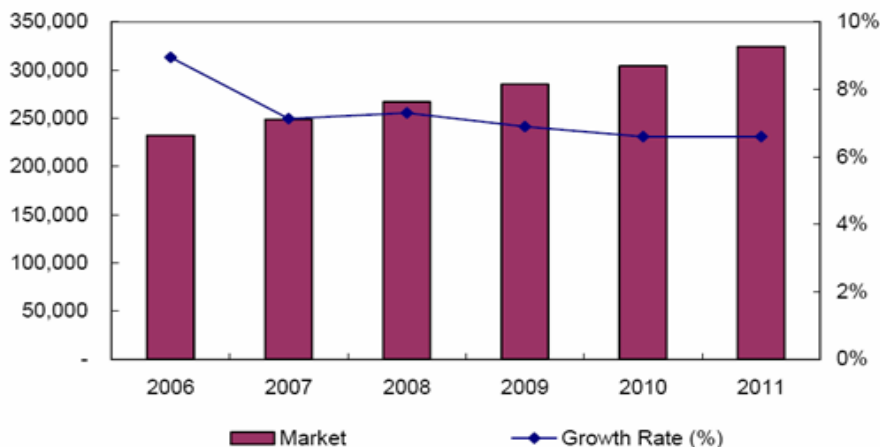
국내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Oracle의 유지보수 정책으로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내 DBMS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편, SW 분리발주, 국산 DBMS 제품의 공공 시장에서 선전, 인터넷·포털 업종의 오픈소스 DBMS 확대, 모바일 DBMS 시장 개화 등이 새롭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알티베이스, 티맥스소프트, 큐브리드 등 국내 업체들과 IBM, MS, Sybase 등 외국계 업체들은 이러한 시장 이슈를 기반으로 고객수를 늘리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Oracle 중심의 시장 구도에 반전을 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1년까지 연평균 6.9% 성장

2007년 국내 DBMS 시장 규모는 2006년 2,320억원 대비 7.1 % 성장한 2,48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솔루션 확충에 따른 DBMS의 수요와 통합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 신규 도입 및 업그레이드 등과 연계된 수요, 그리고 프로세스 통합 프로젝트에 따른 수요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국내 DBMS 시장 전망 및 성장률(2006-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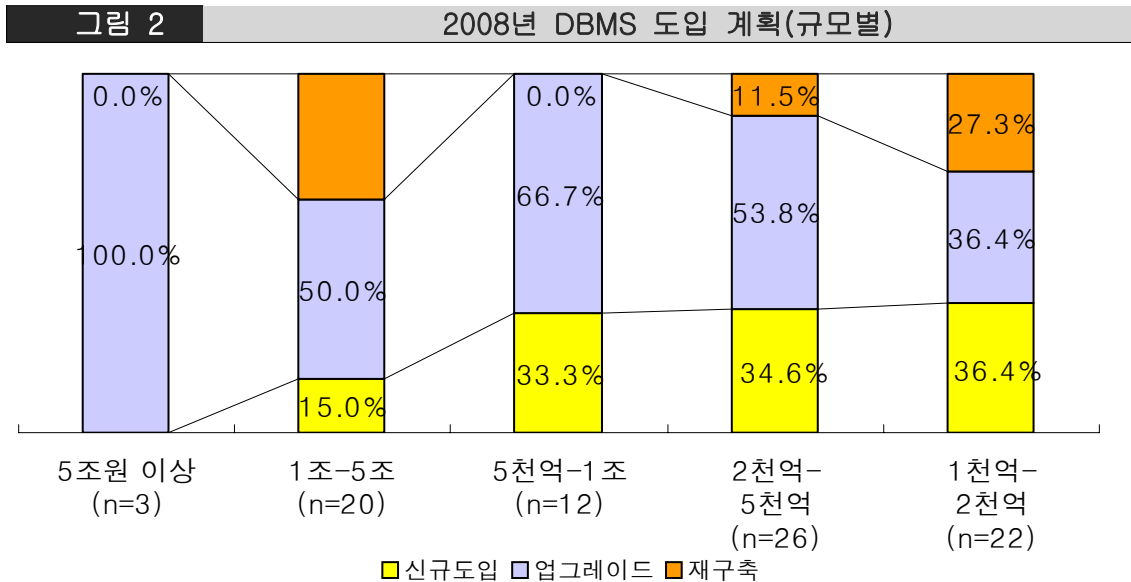
(단위: 천달러)



자료: IDC, 소프트웨어산업백서 2007 재인용

국내 DBMS 시장은 향후 5년간 6.9%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2011년에는 약 3,240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소스 DBMS의 증가, 유틸리티 성향의 라이선스 정책의 확대 등이 성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금융, 통신, 대형 제조업체에서 공공, 유통, SMB 등의 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KRG가 매출액 1천억원 이상 기업 241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DBMS 은 83개 기업에서 도입 계획(신규도입, 업그레이드, 재구축 포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41개 기업 중 신규 도입 24개, 업그레이드 43개, 재구축 16개 등으로 도입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매출액이 작아질 수록 신규도입의 비중이 늘어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2008년 이후로는 SMB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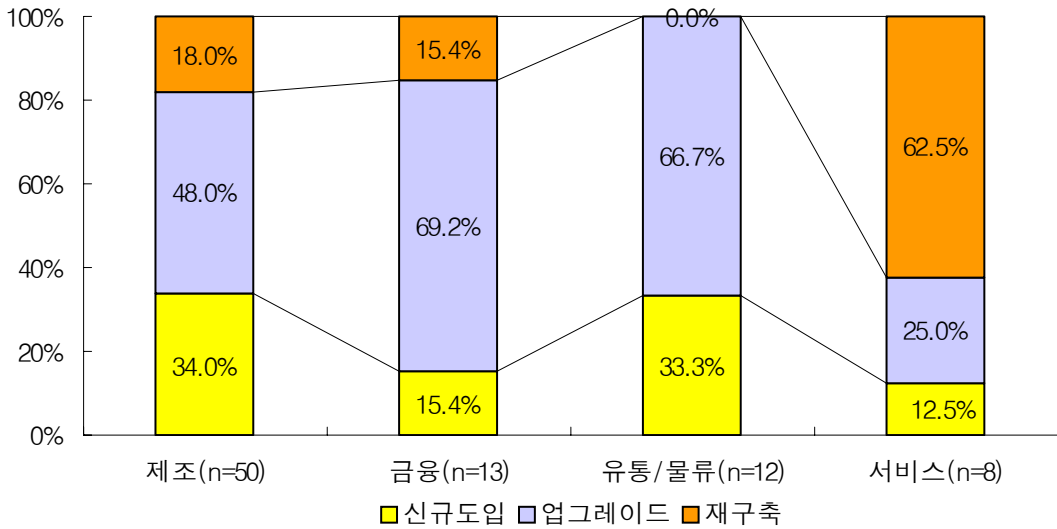


주) DBMS 도입 계획이 있는 83개 기업 대상

자료: KRG

한편,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와 유통 물류 업종의 신규도입 비중이 금융 및 서비스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종의 경우 글로벌 시스템 통합 및 IT고도화, PLM, RFID, MES 등 생산정보화 구현, 유통/물류 업종의 SCM 및 RFID 구축 등이 DBMS 도입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 2008년 DBMS 도입 계획(업종별)



주) DBMS 도입 계획이 있는 83개 기업 대상
 자료: KRG

공공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업체들의 선전

국내 DBMS 업체들은 신제품 출시와 공공 시장에서의 DBMS 분리발주, 유지보수 효율을 둘러싼 오라클과 고객과의 갈등, 그리고 모바일 DBMS 시장 활성화 등의 요인을 잘 활용하여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체 시장의 90%(공공 시장의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라클, IBM, Sybase 등 외국계 기업에 맞서 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Oracle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만, 국내 DBMS 제품의 안정성이 확인되면 Oracle 원백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1 국내 DBMS 업체들의 공공시장 공급 현황

구분	공급처	사업명
알티베이스	국방부	물자·탄약 정보체계 성능개선 2단계 사업 DBMS 분리발주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 사업(인프라 관리 영역)
티맥스소프트	구로구청	인터넷 서버 고도화 구축 사업
	용산구청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구축 사업(EAI 로그 관리 영역)
	국토해양부	보안관제대응센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DBMS 업체들은 모바일 DBMS용 제품 출시 및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표 3		DBMS 업체들의 모바일 사업 현황
업체명	모바일 DBMS	사업전략
사이베이스	모바일 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PDA, 물류·공장 자동화 단말기 등에 공급 • 내비게이션·셋톱박스로 사업 확대 • 국내의 한 내비게이션 업체에 식당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공급
알티베이스	모바일 DB 개발팀 구성, 제품 개발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사설교환기(PBS) 등에 초점을 맞춰 모바일 DBMS 개발 예정
티맥스소프트	티베로 라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PDA·셋톱박스·통신장비·내비게이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량·내장형 DBMS • 윈도우CE에 포팅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
오라클	임베디드 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폰 개발 기업인 삼성전자·LG전자 등과 임베디드 DBMS 공급 협의 • 휴대폰 기업 외에도 자동차·조선 등 국내 5개 특화 사업군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 계획

자료: 각사 발표자료 정리

TCO를 고려한 효율적인 DBMS 도입 전략 세워야

국내 DBMS 시장은 그 동안 Oracle, IBM, Microsoft, Sybase 등 외국계 업체가 시장을 주도해왔다. 특히 이 중에서도 Oracle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는데, Oracle 제품은 핵심 업무에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비싼 가격과 유지보수비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사용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Oracle이 신규 DBMS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20%대로 상향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DBMS 공급선 다양화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공공 부문의 SW 분리발주 시행, 국내 DBMS 업체들의 적극적인 원백전략, Sunmicrosystems의 MySQL 등 오픈소스 DBMS 등 DBMS에 대한 대안이 다양해지면서 효율적인 DBMS 도입을 검토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고객들의 DBMS 다양화 전략이 얼마나 강한 시장 파괴력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시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핵심 업무 영역에 대한 진출이 전체가 되어야 하는데, 거대한 개발자 네트워크, 관

행으로 굳어진 인식, 기존 DBMS를 대체하거나 혹은 새로운 DBMS를 도입했을 때의 위험요소 등을 고려해볼 때 대안을 찾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공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DBMS 업체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부 고객을 중심으로 복수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다. 향후에도 DBMS 시장은 전통적인 DB 업그레이드 수요, SOA도입의 확산, 신규 애플리케이션 및 시스템 통합 수요와 맞물려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반드시 TCO 개념에서의 효용성과 가치를 고려한 DBMS 도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며, 고객 스스로 DBMS 도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